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과 극복의 방안

김 용 범

(문학박사, 문예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 들어가는 말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여 사회 전분야에서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탐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대비는 우리가 당면해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중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이 정보산업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글문화라 할 수 있다. 한글문화는 곧 모든 정보산업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동시에 미래 사회의 민족 정체성(正體性)을 결정짓는 관건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를 잊고 있다. 그것은 분단의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민족에게 2개의 언어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평양말 중심의 문화어와 서울말 중심의 표준어가 그것이다.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한국을 지향하는 21세기는 바로 정보화 시대이며 동시에 통일의 시대이다. 따라서 남북한에 병존하고 있는 2개의 언어체계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을 가장 극명히 드러내는 분야는 다름아닌 언어의 이질성 문제이다. 상호 다른 이데올로기 체제에서 생성된 이 언어의 이질성 문제는 어휘, 발음, 철자법, 띄어쓰기, 문체, 화법, 언어예절 분야에서 현저하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북한의 의도적인 언어관과 언어정책이 내재되어 있다. 말하자면 그들의 언어관과 언어정책은 오늘날 남북언어의 심각한 이질화 현상을 초래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통일의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는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하나의 통합된 언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당면의 과제를 안게된다. 동시에 정보산업 분야에서는 이같은 이질성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는 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다.

2. 해방 후 북한 언어정책 변화의 개황

해방 후 북한은 지금까지 4번에 걸친 철자법의 개혁과 문맹퇴치 사업, 그리고 이에 따른 한자 폐지, 말 다듬기 운동, 문화어 운동 등으로 인하여 남한과 언어 생활에서 많은 차이를 초래하였다. 북한은 언어가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라고 하는 유물론적 언어관에 근거하여 언어 정책을 설정하고, 당 통제하에서 획일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일반적인 언어 변화 속도를 훨씬 앞질러 빠르게 언어가 변하고 있다. 특히 '60년대 후반 '문화어'라는 새로운 공용어(표준어)를 만들어 낸 이후부터는 김일성의 주체 언어 이론이 그것을 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1966년 김일성 교시를 근거로 하여 북한에서는 이른바 문화어 운동이 펼쳐진다. 이어서 <<조선말규범집>>이 간행되고, 1968년에는 <<문화어학습>>이 창간되어 문화어 운동은 어학혁명으로서 북한의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김일성 주체 언어 이론이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언어의 본질과 사명, 민

죽어 건설의 합법칙성, 언어발전의 터를 다지는 것, 어휘 이론, 언어 규범화 이론, 언어 생활의 올바른 기풍, 글자 문제 등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언어 정책으로서 북한 노동당 언어 정책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걸친 이러한 문화어 운동은 1976년 <<조선문화어 문법규범>>에서 어휘 정리에 이은 문법 규범이 확립·정비되고, 1966년 교사의 10주년 기념 논문집이 출간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뿌리를 내려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 가고 있다. 또 1988년에는 <<조선말규범집>>이 또다시 개정·보완되었는데 여기서는 '표준 발음법'을 '문화어 발음법'으로 개정하였다. 근자에 발행되는 <<문화어학습>>의 내용 등을 검토해 볼 때 '80년대에 와서는 상당한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어 시대에 들어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1960년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혼민정을 창제와 주시경의 민족어 연구를 찬양하고 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을 그래도 다소 수행해 왔으나 1966년 이후 문화어 운동이 전개되면서부터는 이러한 것들이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또 1933년 조선어학회가 만들었던 '한글 맞춤법 통일안'도 '60년대 초까지는 인민의 지지를 받아 성립되었다고 긍정적 평가를 하다가 문화어 시대 이후로는 그것이 서울말을 표준으로 하였다 하여 비판적 자세를 취하거나 비방하고 있다.

3. 문화어 성립의 배경

문화어는 표준어에 대한 일종의 상대적 언어 체계이다. 이는 그 이전에 쓰이던 표준어와 또다른 그들대로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문화어란 말이 쓰이기 이전에 북한은 우리와 동일 언어 체계를 사용했다. 그러나 1966년 이후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언어 정책을 수립, 이를 정책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언어 이질화의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그러면 문화어의 성립 배경이 되는 몇가지 중요한 자료를 소개해 본다.

서울말은 남존여비사상 석어파진 부르조아적 생활이 지배하는 말로서 오늘 남조선방승에서는 여자들이 남자에게 아양을떠는 코맹맹이 소리를 그대로 쓰고 있으며 그것마저 고유한 우리 말은 얼마없고 영어 일본말 한자어가 반절이나 섞인 잡탕말이다 우리는 우리 혁명의 참모부가 있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방면에 걸치는 우리 혁명의 전반적 전략과 전술이 세워지는 혁명의 수도이며 요람지인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김일성 저작선집>> 20권

우리 말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터를 잘 닦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혁명의 참모부가 있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방면에 걸치는 우리 혁명의 전반적 전략과 전술이 세워지는 혁명의 수도이며 요람지인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표준어란 말은 다른말로 바꾸어야겠습니다.

<표준어>라고 하면 마치 서울말을 표준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 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가 혁명의 수도인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발전시킨 우리 말을 <표준어>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문화어>란 말도 그리 좋은 것은 못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쳐쓰는것이 낫습니다.

— 김일성의 1966년 5월 14일 교시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 중에서

문화어 : 사회주의 건설시기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다의 령도밑에 혁명의 수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로동계급의 계급적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가꾸어진 언어. 전체 인민이 규범으로 삼는다. 우리 문화어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언어사상과 그것을 구현한 우리 당의 올바른 언어정책에 의하여 해방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혁명의 수도 평양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주체적으로 발전한 아름다운 언어로서 조선민족어의 전형이다.

— <<현대조선말사전>>(1981년), p.1007

이 세 자료는 문화어의 성립 배경과 개념 및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실증적 자료이다. 말하자면 문화어는 결국 남한이라는 개념과 서울말 그리고 표준어 체계에 대한 상대적이며 대립적 언어 체계로서 평양말 그리고 문화어란 개념을 정착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정책의 성립은 결국 김일성의 교시에 근거한 것이며 오늘 현존하고 있는 표준어와 대립된 언어 체계로서 자리잡은 것이다.

4. 남북한 언어이질화의 실제

그러면 남북한 언어이질화의 실제는 어떠한가.

이 실질적인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정보산업 전분야에서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현실적 과제이다.

가. 자모의 차례와 이름

남북한의 자모의 차례와 이름은 큰 차이를 지니고 있다. 자모의 수에 있어서 북한은 복합자 16자를 포함한 40자의 자모를 택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24자로 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이뿐 아니라 사전이나 색인의 자모 배열법에서도 차이를 지니고 있다.

이를 예시해 본다.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 극복의 방안

4

○ 남한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네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읇)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붙임 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ㄲ(쌍기역) ㅃ(쌍디귤) ㅆ(쌍비읍) ㅈ(쌍시옷) ㅊ(쌍지읒)

ㅐ(애) ㅑ(에) ㅓ(예) ㅕ(여) ㅗ(와) ㅛ(왜) ㅜ(위) ㅠ(위) ㅡ(의)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음 ㄱ ㅋ ㄴ ㄷ ㅁ ㄹ ㅂ ㅃ ㅅ ㅈ ㅊ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북한

조선어 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읃)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읏) ㅇ(이응)

ㅈ(지읏)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읇)

ㄲ(된기역) ㅃ(된디읃) ㅆ(된비읍) ㅈ(된시읏) ㅊ(된지읏)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ㅐ(에)

ㅑ(애) ㅓ(예) ㅕ(여) ㅗ(와) ㅛ(위) ㅜ(의) ㅗ(와) ㅛ(위) ㅜ(왜) ㅞ(웨)

자음 글자의 이름은 각각 다음과 같이 부를 수도 있다.

(ㄱ) (느) (드) (르) (므) (브) (스) (응) (즈) (츠) (크) (프) (흐) (끄) (뜨)

(뽀) (쓰) (쥌)

나. 문장 부호

남북한의 문장 부호와 문장 부호법의 기본적 차이는 남한이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동시에 인정하는 한편 북한은 가로쓰기만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한가지로만 되어 있다.

문장 부호의 비교표는 다음 페이지와 같다.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 극복의 방안

부호	영역	남	한	북	한
마	침 표	온 점 고리점 물음표 느낌표	. ° ? !	점 X 물음표 느낌표	. ? !
침	표	반 점 모 점 가운뎃점 쌍 점 빗 금	, \, · : /	반 점 X X 두 점 : X	, *반두점 ;
따	옴 표	큰따옴표 겹낫표 작은따옴표 낫표	“ ” 『 』 ‘ ’ 「 」	인용론 X 거듭인용표 X	<< >> < >
뉘	음 표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 < > []	쌍괄호 X 적외괄호	() []
이	음 표	줄 표 붙임표 물결표	— - ~	폴이표 이음표 물결표	— - ~
드러냄표 안드러냄표	드러냄표 숨김표 빠짐표 줄임표	° . ' . xx ○○ □	 □	밀집 숨김표 X 줄임표 * 같음표 x x x ○○○ □□□ ~

(X: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부호, * : 북한에서만 사용하는 부호)

지금 제시한 이같은 문제들은 남북한의 한글 기계화 문제의 기본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말하자면 이들 체계가 북한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워드프로세서, 타자기, 컴퓨터 키보드의 기본틀이 되며, 그 배열순서나 배치가 오늘날 우리의 것과 차이를 발생시

키는 것이다.

즉 1987년 북한에서 개발된 조선말 문서처리기(1987년 10월 조선화보에 소개), 1987년 개발된 조선글타자기의 기본 설계가 된다. 특히 1987년 개발된 조선글타자기로 우리 한글에서 형태와 크기, 위치가 다른 자모수를 282개로 규정하고 사용자의 견지에서 31개의 자모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히고 있다(87년 조선화보는 그이상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지는 않았다). 또한 현재 80년대 후반에 개발 보급된 소형 컴퓨터인 장자산 2호, 최근 개발 보급되고 있는 장자산 3호 등의 키보드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5. 북한의 어휘정리 사업

정보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특히 중요하게 연구해야 할 과제는 북한의 어휘정리 사업이다. 이 분야의 연구 등 우리의 정보산업에서 앞으로 지속 추진해야 할 각 분야별 시소로스 개발 문제와 정보분석과 가공의 문제, 특히 색인 언어에서 탐색 언어의 처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다. 김일성은 그의 저작선집에서 어휘정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문제는 남조선에서 쓰고있는 말에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 신문 같은 것을 보면 영어나 일본말을 섞어쓰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자말은 중국 사람들도 쓰지 않는 것까지 망탕 쓰고 있습니다. 사실 남조선에서 쓰고 있는 말에서 한자말과 일본말, 영어를 빼버리면 우리 말은 <을>, <를>과 같은 토만 남는 형편입니다...

—— ‘김일성 교시’에서

그리고 어휘정리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같은 뜻의 단어로써 고유어와 한자어의 두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고유어를 쓰며 일정한 한자어를 쓰되 이미 우리말로 굳어진것만 쓰고 그 범위를 제한하여 새로운 한자어를 자꾸 만들어 낼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고유한 어근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말을 더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우리 말을 발전시키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저작집>> 18권, P.21

이같은 원칙으로 북한에서는 말다듬기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 18개의 전문용어 분과위원회를 1966년 6월 이후 내각 직속 국어사정위원회와 사회과학원 국어사정지도처및 언어학연구소 산하에 18개 전문용어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이곳에서는 해당 분과별 말다듬기 연구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매주 2~3회 신문에 게재 의견을 수렴 확정해 왔다.

18개 전문 용어 분과위원회

전 문 용 어	분 과	명 단
일반어	일반어	용어 분과위원회
의약학, 의학	의약학	“
금속	금속	“
생물	생물학	“
농학	농학	“
물리, 수학, 화학	자연과학	“
건설, 수리	건설, 수리	“
전기, 체신	전기, 체신	“
기계	기계	“
경공업	경공업	“
상품 이름	상품 이름	“
문학예술	문학예술	“
사회과학	사회과학	“
체육	체육	“
수산, 해양	수산, 해양	“
온수	온수	“
지질, 지리, 광업	지질, 광업	“
입학	입학	“

이들 위원회에서 마련된 몇가지의 말다듬기 사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체육 용어

근중체육(생산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체육)

집단체조(마스게임)

로동체육(등산·야영·중량들기·팔굽혀펴기·천 샅뜨기 등 노동력 증가를 위한 체육)

가위발뛰기(공중에서 가위처럼 다리를 돌리면서 뛰는 넓이뛰기의 일종)

달리기대회(마라톤 경기 같은 것)

국방체육(사격·활쏘기·무선통신 등 국방을 위한 체육)

민속경기(우리 민족 고유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네·씨름·널뛰기·궁술·줄 당기기·석탄·팽이치기·연 띄우기 등을 말함)

오른쪽 공격수(라이트 윙)

오른쪽 중간 방어수(라이트 하프 백)

왼쪽 공격수(레프트 윙)

중앙 공격수(센터 포워드)

중앙 방어수(센터 하프)
 모서리볼(코너 킥)
 오른쪽 방어수(라이트 풀 백)
 좌내 공격수(레프트 이너)
 왼쪽 방어수(레프트 풀 백)
 중앙으로 꺾어차기(센터링)
 가슴연락(체스트 패스)
 던지기 볼(서브)
 긴 연락(롱 패스)
 순간 타격(스파이크)

○ 의학 용어

<본래말>	<다듬은 말>
청진	들어보기
촉진	만져보기
시진	살펴보기
모세혈관	실피줄
소순환	작은(피)돌기
폐순환	폐(피)돌기
순환장애	피잘안돌기
살균	균죽이기
관절	마디
주관절	팔굽마디
관절근	마디살
관절강	마디안
관절와	마디오목이
발전제	땀내기약
해열제	열내림약
진정제	가라앉힘약
완하제	약한 설사약
절창	베인 상처
할창	빠개진 상처
좌창	찌킨 상처
일광욕	햇빛 쬐이기
타진	두드려보기
망진	바라보기
문진	물어보기
대순환	큰(피)돌기
체순환	몸(피)돌기
호흡	숨쉬기

폐활량	폐숨량
멸균	균 캉그리 죽이기
견갑관절	어깨마디
고관절	넙적다리마디
관절낭	마디주머니
관절손	마디시울
관절지	마디가지
지한제	땀먹이약
수렴제	가다들임약
조혈제	피만들기약
강장제	보약
자창	찢린 상처
렬창	재진 상처
해수욕	바다물미역
광선욕	해빛 쬐이기

0 물리학 용어

<본래말>	<다듬은 말>
용량	들이(량)
열용량	열들이
비습	견증 누기
비전하	견증 전기량
비체적	견증 부피
감도	느낌도
광원	빛샘
초점	모임점
비중	견증무게
전기용량	전기들이
비저항	견증저항
비점도	견증끈기
비열	견증열
광	빛
랭광	찬빛
허초점	헛모임점

0 화학 용어

<본래말>	<다듬은 말>
유욕	기름찜질
플라스크	실험병
공기욕	공기찜질

평저플라스크	평밀실험병
삼구플라스크	새아구리실험병
비커	실험고부
알콜램프	알콜등잔
표백	바래기
응고	엉겨굳기
수증기욕	김찜질
사육	모래찜질
구저플라스크(밑바닥이 등근 플라스크)	등근 밀실험병
분기플라스크(가지 달린 플라스크)	가지달린 실험병

0 생물학 용어

<본래말>	<다듬은 말>
중장	가운데 벨
전위	앞먹이주머니
후위	뒤먹이주머니
조חק	새חק
경맥	어깨줄
전중맥	앞가운데줄
둔맥	볼기줄
호맥	활줄
분맥	갈라진줄
기문	숨구멍
유충	새끼벌레
환절	고리마디
동면	겨울잠
변태	모습같이
불완전변태	덜된모습같이
피부선	껍질샘
피지선	기름샘
후장	뒤벨
중위	가운데먹이주머니
어류학	물고기학
포유동물학	짐승학
주맥	엄지줄
후중맥	뒤가운데줄
횡맥	가로줄
지맥	가지줄
간맥	사이줄
성충	엄지벌레

속간	더듬뿍
체절	몸마디
하면	여름잠
완전변태	완전모습같이
선	샘
유선	젓샘
한선	땀샘

○ 수산·해양 용어

<본래말>	<다듬은 말>
파도	물결
파속	물결속도
파저	물결골
파동	물결움지임
파형	물결형
파정	물결마루
파방향	물결방향
단파	짧은 물결
해안파	기슭물결
파장	물결길이
파고	물결높이
파압	물결압력
파력	물결힘
파면	물결면
파동선	물결마루선
장파	긴물결
풍파	바람물결
천해파	얕은물결
심해파	깊은물결
랭수대	찬물줄기
온수대	더운물줄기
풍성류	바람흐름
경사류	비탈흐름
투명도	맑음도
한류	찬물흐름
난류	더운물흐름
표층류	겉층흐름
중력류	무게흐름
수심도	물깊이지도
수색	물빛

6. 최근 북한의 정보산업과 연구의 성과

최근 북한의 정보산업과 이에 기초한 연구 성과들을 간략히 소개해 본다. '90년도 이후 북한은 동구및 구소련에서 유학하고 있던 유학생들을 대거 귀국 시키면서 이 방면의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그들의 학술지에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동일 영역에 관심이 있는 우리 학자들과 상호 관심 영역이 될 것이며, 앞으로 정보산업 분야의 남북교류와 학술 정보교환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90년 이후 "조선어문"에 실린 중요한 관련 연구 업적은 다음과 같다.

조선어문 90년 1호

현대 기계 번역 체계의 언어학적 특성(1) : 준박사 문영호

빈도수 사전 작성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 이정용

조선어문 90년 3호

기계번역에서 제기되는 입출구 언어의 구조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 : 배광희

조선어문 91년 1호

기계번역에서의 의미모형 이론에 대하여 : 배광희

조선어문 91년 3호

기계번역에서 단어의 다의성 해결을 위한 이론적 연구 : 리미봉

조선어문 91년 4호

현대 기계번역 체계의 언어학적 특성(2) : 준박사 문영호

0

조선어문 92년 1호

정보검색언어의 다의성 문제 : 김길현

특히 이들의 최근 연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노어와 한국어의 자동번역 시스템 개발 문제이다. 정치, 사회 전분야에서 구소련과의 학문적 긴밀성을 감안한다면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자동번역 시스템에 접근하는 북한쪽 연구는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선결의 과제이며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 앞으로 러시아와 한국의 교류를 전제 할 때에도 북한학자들의 축적된 연구 성과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7. 맺음말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실현되고 국민 모두의 생활 속에 정보산업의 중요성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또한 그 실현의 시기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통일의 시대와 연계되어

있다. 남북한의 통일을 전제할 때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는 무엇보다도 문화적 이질성의 극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의 문제이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인 언어의 동질성 회복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보산업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문화 이질성 극복을 위하여 연구 영역을 새롭게 확대하여 개척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분야와 연구 영역에서 북한의 현존하고 있는 문화어 체계를 수용·포괄할 수 있는 관점이 수용될 때에 우리는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 정보교류의 용이성을 획득할 수 있고 또한 통일 이후에도 언어 및 문화의 이질성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하나의 통합된 정보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북한에서 활동중인 정보산업 관련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간 독자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던 자동언어번역 시스템의 연구 또는 정보검색 언어 개발 등 남북한의 학술적 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상호교류를 통해 각 분야의 시소로스 개발 등의 사업이나 현재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착수하고 있는 통일대비 종합국어대사전 편찬 계획 등에서 남북한 국어학자들과 정보산업 관련 학자들의 공동연구가 가능해 질 것이다.